

이렇게 삽시다 (2) Live This Way (2)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Living a Life after God's Heart (누가복음 Luke 15:25-32)

- 1. 집안의 탕자는 잘못된 행복관을 가집니다. A prodigal at home has a false view of happiness.
- 2. 집안의 탕자는 잘못된 동기로 섬깁니다. A prodigal at home serves with a wrong motive.
- 3. 집안의 탕자는 아버지의 중심을 모릅니다. A prodigal at home doesn't know the Father's heart.



1.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행복관을 갖고 삽니까?

The two sons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used their father in different ways for their own happiness. Even now many people use God in a similar way. How about you? Have you ever made such a mistake? What view of happiness do you have?

2. 집안의 탕자가 된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 했지만 그 동기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만 약에 그 동기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보상을 바라는 기대감 이라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The eldest son became a prodigal at home because he worked hard for his father with the wrong motive. What is your motive for trusting and serving God? If the motive is the fear of God's judgment or the expectation of future reward, what kind of heart change is needed?

3. 맏아들은 아버지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The eldest son didn't understand his father's heart, so he couldn't share his father's joy but became angry with him. What is God's heart that Jesus wants to reveal through the parable? How can you live by the way of grace calculation rather than human calculation?

